



日서 고려 비로자나불도 발견

14세기경 제작, 7000여위 불상 배치 독특 국보급 가치



동대 정우택 교수 "화엄경 시각화 한 듯"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7000여위의 작은 불상을 배치한 독특한 형식의 고려불화 비로자나불도가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는 일본 고베(神戸)시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고려불화 비로자나불도를 촬영, 6월 18일 동국대에서 열린 동양미술사학회를 통해 학계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비로자나불화는 가로 196cm, 세로 233cm 크기로, 비단화폭에 붉은색, 녹색, 분청의 안료와 금니로 그려졌다. 중앙에는 비로자나불과 성중이 모셔져 있으며 그 주위에 가로 0.7cm, 세로 1.5cm 크기의 불상 7000여위가 배치됐다. 작은 불상들은 제작기 다른 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다. 제작연대는 1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한 점이라든가 작은 불상들이 그려진 고려불화는 유례를 찾기 힘들어, 충분히 국보급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정우택 교수는 작은불상을 배치한 도상과 관련 <화엄경>에 비로자나불이 깨달음을 얻을 때 대광명을 시방세계에 비추고 모든 털구멍에서 작은 부처가 나온다는 구절이 보인다"며 "이를 시각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불화 중심에 모셔진 비로자나불(위)과 본존불 주변에 배치된 7000여위 작은 불상들 부분(아래)



발해 불교문화 전시실 마련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日 도쿄대서 유물 23점대어

이불병좌상 등 일부 공개

새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 발해실에 전시될 발해유물 일부가 6월 16일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유물은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나란히 앉은 모습을 표현한 이불병좌상(二佛並坐像), 사람으로 만들어진 비석 형태의 불상인 함화사년명불비상(咸和四年銘佛佛像), 석사자상(石獅子像) 등 23점으로 발해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들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도쿄대학 고고학연구소에서 상경유전부 유적(중국 흑룡강성 영안현 등지에서 발굴한 것으로, 도쿄대 문화부의 차용협정 체결을 통해 대여됐다.



가장 눈에 띄는 유물은 이불병좌상(사진)이다. 이불병좌상은 석가모니가 법화의 가르침을 설할 때 땅 밑에서 7보의 땅이 솟아나고, 땅 속에 앉은 다보여래(多寶如來)가 석가의 진실을 증명하고, 탑 속으로 석가를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불병좌상은 발해의 중경·동경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형태로, 고구려 후기 이래의 불교 전통의 계승을 반영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30평 규모로 마련된 발해실은 국내 처음으로 마련되는 발해 유물 상설전시실로 총 5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게 되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일인 10월 28일 일반에 첫 선을 보인다.

박익순 기자

열한분 대덕 스님

사자후 금정산에 '저렁 저렁'

범어사, 지장 100일기도 및 고승대법회 개최

본사와 공동 주최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설선대법회'로 선종진작의 큰 바람을 일으켰던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또 다시 열한명의 대덕 스님들을 모시는 법석을 마련한다. 범어사는 6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석 달 동안 개최하는 지장 100일기도 및 고승대법회를 통해 대중들의 수행 정진 열기를 이어나간다.

6월 24일~10월 3일까지

자유·월운·무진장 스님 등

지장재일인 6월 24일 시작되는 고승대법회는 지장 백일기도 봉행과 고승대법회를 병행하여 지장백일기도 각 재일/열흘에 한번 마다 큰 스님들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한다.

이번 고승대법회에는 첫날 일제 법문을 하는 범어사 주지 자유 스님을 비롯 불선사 주지 월운 스님(7월 3일), 전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7월 13일),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7월 23일),

삼일불교교육원 원장 각성 스님(8월 2일), 전 용주사 주지 정무 스님(8월 12일), 범주사 회주 혜정 스님(8월 22일), 가산불교문화원 원장 지관 스님(9월 1일), 대흥사 주지 천운 스님(9월 11일),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9월 21일), 쌍계사 주지 고산 스님(10월 3일)이 법문에 나선다.

특히 이번 법회는 선을 주제로 했던 설선대법회와는 달리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한 자유 스님, 동국대경원에서 40여년 간 팔만대장경 완역 등 불경 번역에 매진해온 월운 스님, 법화경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현해 스님 등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있는 스님들의 다양한 주제 법문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51)508-312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백장선원, 수련회로 활동 본격화

25일부터 예절참선 108참회 등

21세기 새로운 불교 수행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는 백장선원(이사장 원규)이 6월 25일 개최할 제1회 불교수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바른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새로운 수행공동체를 목표로 5월 1일 창립한 백장선원이 한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용은 불교수련회는 대구 능인선원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불교 기본예절을 비롯해 2시간의 불교 강의와 참선, 108참회, 종합토론 등으로 꾸민다.

백장선원은 수련회를 매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월에는 약 3천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음악법회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성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하는 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한편, 20~30대 젊은 불자 포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백장선원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상 선원과 어느 정도의 수행을 이어온 재가불자들을 위한 중 선원, 수행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하 선원을 갖춘 메타다온과 수행을 결합할 수 있는 수련장을 마련하겠다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두고 있다. (053)744-0103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신라불교 저변확대 보탬 되길”

영남불교문화연구원 개원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와 보급에 힘써온 영남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재원)이 대구 수성구 상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6월 11일 창립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선진 스님, 김재원 박사, 박병선 교수를 비롯한 지역 스님과 관련학자, 문화인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영남불교문화연구원에는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 진광 스님, 은광 스님(문운승가대학 강사), 도명 스님(연꽃어린이집 원장), 김재원

박사(한국동서철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박병선 교수(영남대 국사학과)등 30여명의 인문, 사회, 문화 분야의 석·박사 출신 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영남불교문화연구원은 앞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연1회 학술 연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초빙 특강과 삼국유사 유적지 답방, 불교관련 원서 윤독 및 역주 작업도 기획하고 있다.

김재원 원장은 “신라불교의 산실인 영남에 신라불교의 맥을 잇고, 울금은 불교문화 인식을 위한 저변 확대와 대중적 공감대 형성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단신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 취임



대한불교 법화종은 6월 10일 고성 안정사에서 제17대 총무원장 혜륜 스님(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운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륜 스님은 “종단통합을 바탕으로 사회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등을 추진해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혜륜 스님은 앞으로 안정사를 총림으로 육성하는 안정사 성역화사업을 통해 안정사를 교육도량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법화종을 이끌어왔던 조사스님들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장에 법혜 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6월 11일 13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제9대 회장에 대각사 주지 법혜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6월 30일 오후 3시 총회를 통해 인준을 거친 뒤, 대구프린스호텔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취임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법혜 스님은 80년대 중반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부설 신도교육기관인 불교대구교육원을 설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구지역 신도교육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배지선 기자

부산 공덕원 지장산림 회향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은 6월 10일 지장산림대법회를 회향했다.

오후로 2회째 맞는 지장산림대법회는 4월 22일 입제, 매주 금요일마다 대덕 스님과 불교학 교수를 초청, 법문을 열었다.

그동안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의 입제 법문, 장원 무량사 주지 덕은 스님, 통도사 영축선원 선덕 학과 스님, 은해사 승가대학원 원장 지안 스님, 범어사 승가대학 대교반 강사 용학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이만 교수, 충북 성불사 주지 일송 스님의 법문이 이어져왔다.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은 “지장산림법회의 회향은 효, 참회, 회향으로 복건과 깨달음을 얻어가는 일상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활 속의 수행을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자매결연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총학생회(회장 효선)는 6월 15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서는 총학생회와 복지관의 상호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상호 기여하고, 불교문화와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결식노인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비의 손길 쌀 108포대 모으기’ 행사를 진행해 온 총학생회들은 그동안 모아진 쌀 1400kg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배지선 기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3차 공청회

금번 공청회에서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한 “불교학 연구 활성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 주 제 : 불교학 연구 활성화 방안

- 일 시 : 2005년 6월 28일(화) 오후 1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다량관 세미나실

- 사 회 : 혜담 스님(각화사 주지)
- ◆ 발제 및 논평 (오후 1시 ~ 3시)
 1. 제 1주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연구현황 및 제고방안
 - 발제 : 최병현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 논평 :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
 2. 제 2주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우수 교원 및 연구인력 확보방안
 - 발제 : 심익섭 교수(동국대 행정학과)
 - 논평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 이종표 교수(전남대 철학과)
- ◆ 종합토론 (오후 3시 ~ 5시 30분)
 - 지정토론 : 불교학 전공 교수
 - 종합정리 :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과, 한국불교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문 의 : 02)2260-3768



우리가족의 건강 지킴이

모양산 전록탕

건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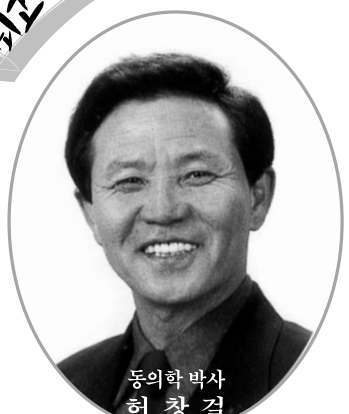
-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 한다.
- 중년 남,녀들의 기억강화, 경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모양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모양산 전록탕은 모양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재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최고는!



동의학 박사 허창길

- NK내추럴 대표 허창길
- 사리원 중앙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의 담당 등의 학 박사

모양산 전록탕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모양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재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판매원 : 룩원 02)771-2985 ● 제조원 : NK내추럴 ● 총판대리점모집 02)755-9821